

지역 소식통

정읍시, 27일 '정향누리 단풍아카데미' 열려

정읍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연지아트홀 공연장에서 '400일 간의 김치버스 세계일주'를 주제로 제100회 정향누리 단풍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많은 여행을 통해 인생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낸 여행작가 겸 요리사인 류시형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작가, 사업, 방송,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류시형 작가는 러시아·북미·유럽 등 세계를 돌아다니며 김치와 우리 음식문화를 알린 대표적인 김치 홍보대사이자 문화기획꾼이다.

류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낙천주의자라는 별명처럼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과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읍시민들에게 청춘의 소중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200명에 한해 진행된다.

사전예약은 정읍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정읍시청 총무과(339-516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주산면, 최고령 어르신

생신축하 · 건강기원

부안군 주산면(면장 정춘수)에서는 관내 최고령자인 박중순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해 드렸다.

올해 4월 20일로 92세를 맞이하신 박중순 어르신은 매일 이륜차로 관내 순시를 다니실 만큼 정정하시다. 또한 면사무소에 방문하실 때마다 과거 주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주산면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정춘수 주산면장을 비롯한 주산면 직원일동은 어르신의 밝은 기운에 따스함을 느끼며 한 마음으로 박중순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했다.

박중순 어르신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직원분들이 축하해주어 감사하고 기쁘다. 사랑이 넘치는 주산면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며 애환심을 드러내셨다. /부안=김석진 기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둥지 들고 서식 확인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에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가 둥지를 들고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총 두 개의 둥지와 산란이 관찰됐고, 암수로 추정되는 검은머리물떼새 5쌍이 둥지 주변을 경계하며 비행하고 있었다. 고창군은 검은머리물떼새 가족의 안전한 번식과 서식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NT(준위협)등급 취약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서해안의 일부 섬이나 내륙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국내 번식지와 번식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고창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로, 지난해 7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또한 전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황해 고유종인 방개를 비롯하여 적색목록 위기종인 황새가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새 90종과 대형저서생물 255종이 서식하며, 염생식물 26종이 있다.

고창군청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은 "매년 찾아오는 철새는 갯벌에 서식하는 갯지렁이류, 고동류 등 저서생물로부터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갯벌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각국 사례와 관계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해 고창갯벌의 철새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거듭난다

건강하고 '올력하는 조직문화'... 출산·교육 등 현실적 정책 전환

전북 고창군이 건강하고 올력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일하는 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먼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목표 합당식 인구늘리기 정책을 중단하고 출산·교육·기업유치 등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또 전 직원이 간부회의, 비전대회의 날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태블릿PC를 보급해 수정과 복사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인사분야 개선도 돋보인다. 2018년 공무원 정원 748명에서 현재(3월말 기준) 859명으로 107명(14.3%)을 확대해 직인별 업무량을 조정했다.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과장급(5급) 이상 정원을 36명에서 39명으로 늘리고 158개의 팀장 자리에서 27개의 팀을 늘려 185명(17% 증)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했다.

또 최초 여성 부군수 등 주요 보직

에 여성공무원을 임명하는 여성공무원 등용정책을 실시해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고 보수적인 공직사회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증가하는 악성민원 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 조제도 만들었다.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 의료, 인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창군수는 "이와 같은 방안들은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행복한 직원들과 만족하는 군민들이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고창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모로비리공원, 울여름 물놀이장 개장 목표로 공사 한창

울여름 고창군 고창읍 초입에 명품 자작나무숲과 물놀이장이 들어선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모로비리공원'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숲길과 인공암벽장이 준공됐고, 올해는 소나무 테마숲, 자작나무 테마숲, 물놀이장, 주차장 공사 가 한창이다.

공원 제일 높은 곳에는 고창읍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휴게센터도 마련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7월 중순께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놀이대, 물벼룩, 분수시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주차장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도 확장 조성된다. 고창군은 주차장 부지를 넓게 쓰기 위해 벽면 등을 보강해 주차면 50면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청 김성민 산림공원과장은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장을 살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도심 속쉼터를 제공할 것이다"며 "향후 경사놀이터, 모험놀이터, 하늘쉼터 등을 추가 조성해 볼거리와 놀거리가 넘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짜뉴스에 컷오프 안될말"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민주 중앙당에 재심 요청할 것"

김민영 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20일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공천심사 1차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접철된 이번 결과는 중앙당에 공천심사 재심의를 요청해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모든 소명자료를 첨부해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또한 온갖 흑색선전을 일삼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는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 없이 가짜뉴스와 마타도 어식 의혹 제기만을 근거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적합도 1위 후보를 해명의 기회조차 없이 탈락시킨 것"이라며 "상식 수준의 판단만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읍신협조합장 재임시 분식회계와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현 조합장이 취임후 3년간 저와 임직원들에 대해 끝없이 문제제기를 하며 신협조합장은 물론 자체감사, 외부회계감사까지 수차례 진행했으며, 그 어떤 감사보고에도 김민영이 분식회계와 배임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분식회계와 배임이 없었다는 것은 현 신협조합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며 "임신물유동센터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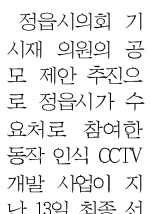
김민영 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20일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공천심사 1차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접철된 이번 결과는 중앙당에 공천심사 재심의를 요청해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호소했다.

립과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2019년 2월경 회계담당과 관리자, 책임자들에게 대해 고발사건이 있었으나 전주지방 검찰청 정읍지청에서 2019년 5월 31일 '혐의없음'을 피고발인들에게 송달했다"고 확인했다.

더욱이 "최근 한 언론사 기사를 보면 이 문제는 이미 3년이나 지속된 것으로 그동안 분란만 조장했을 뿐"이라며 "특히 현 조합장의 문제제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0년 대순총당적립액을 너무 적게 적립한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아빠찬스 운운하며 아들의 취업에 마치 불공정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 공채과정을 통해 선발된 아들을 아빠로 인해 부정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에 대해 정치인 김민영을 떠나 아빠 김민영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나친 흑색선전이며, 공채과정의 정당성은 학교법인의 소명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시제 정읍시의원 "동작 인식 CCTV 개발사업 환영"



정읍시의회 기시제 의원의 공모 제안 추진으로 정읍시가 수요처로 참여한 동작 인식 CCTV 개발 사업이 지난 13일 최종 선정되어 5억2천만 원의 규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동작 인식 CCTV 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예방 등에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시제 의원은 "그간 소외되어 있던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정읍시에 그 기술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렇듯 성과를 거두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 활용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태인면서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읍시가 지난 19일 태인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의 이해와 워크숍 운영, 심화학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주도형 교육과정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 현안 해결 등 주민참여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태인동원(태인면 동원길 24)에서 진행된 수료식은 30여 명의 교육생과 주민,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절미 만들기 및 고피 던지기, 제



기 가지 등 즐거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 개념에 대한 이해, 주민의 역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 등 도시재생의 의미를 세고 주민 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자봉센터, 줄포면 화재현장 복구작업 지원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와 한국부인회 부안군지회(회장 강명례), 한국오리협회 부안군지회(회장 김성태)는 지난 16일 발생한 화재로 축사 등을 잃어 어려운 상황을 처한 줄포면 오리농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능가 복구작업 지원에 나섰다.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9시 40분 쯤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나고 2시간 10여 분만에 진화 되었고 이 불로 축사 7개동(2천72㎡)이 전소하였으며, 트랙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 전했다.

이날 화재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들



은 어린이들 20여 마리 분동에 참여해 피해 능가 재기 의지를 북돋웠으며, 또한 한국부인회(회장 강명례)에서는 생수 10박스를 피해농가에 후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회복을 응원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캠페인